**3주차 인간실격 논제**

자유논제 1

**Q. 요조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p.13) 라고 말합니다. "서로 속이면서 살아가는, 혹은 살아갈 자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이야말로 난해한 것"(p.27)이라고 말하는데요. 인간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 있지만 단념할 수가 없어 '익살'이라는 실로 간신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인간을 바라보는 요조의 이런 생각을 어떻게 보시나요?**

|  |
| --- |
|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광대 짓이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사람이란 것이 알 수가 없어졌고, 저 혼자 별난 놈인 것 같은 불안과 공포가 엄습할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웃과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체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저의 최후의 구애였습니다. 저는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아무래도 인간을 단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광대라는 가는 실로 간신히 인간과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늘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필사적인, 그야말로 천 번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기회를 잡아야 하는 위기일발의 진땀 나는 서비스였습니다. (p.16) |

**공감합니다. 저도 비슷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유논제 2

**Q.** **주인공의 아내는 한 상인을 믿었지만 좋지 않은 일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은 천진무구한 신뢰심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해야 할까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  |
| --- |
| ... 용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었습니다. 요시코는 신뢰의 천재니까요. 남을 의심할 줄이라곤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비참한 일. p.138 ... 저는 유부녀가 겁탈당하는 이야기를 이 책 저 책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요시코처럼 비참하게 능욕당한 여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p.139 |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말도 있잖습니까. 인생은 혼자야.

선택논제 1

**Q. 인간실격의 요조는 진정 인간이 아니였을까요? 무엇이 그를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만들었을까요?**

|  |
| --- |
| 호리키의 그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미소에 저는 울었고, 판단하는 것도 저항하는 것도 잊어버렸고, 자동차를 탔고, 여기에 끌려와서 정신 이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나가도 저는 여전히 광인, 아니 폐인이라는 낙인이 이마에 찍혀 있겠죠.  인간실격. 이제 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p.131 |

인간입니다. 이거 질문을 좀 짚고넘어가고 싶은데,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고 사람이 아닙니까? 저도 몇 년동안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이 아닌가요? 남들과는 다른 사람이지, 일반인이 아닌것이지, 인간실격인가요?

선택논제 2

**Q. 본문중에 요조의 노트를 받은 마담이 그것을 작가에게 넘겨주며 인간이 그렇게까지 망가지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요조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 나아질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  |
| --- |
| *“…내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읽어보고….. .”*  *“울었습니까?”*  *“아니, 울었다기보다… . 끝난거지, 뭐. 인간도 이렇게까지 되면 이제 다 틀렸어.”*  *(139p)* |

**저는 이 질문이 되게 불쾌한게, 그럼 죽으라는 말인가 싶습니다.**